

## 黃順元 장편 〈日月〉의 實存主義文學的 성격

張 良 守\*

### 차례

I. 序 論

III. 自身에게서 찾는 救援

II. 거짓된 삶과 그 破綻

IV. 結 論

### I. 序 論

작가 황순원과 그의 문학에 대해서는 아직 본격적인 연구가 적은 편이다. 이는 아마도 그가 아직 생존해 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이유에서의 연구의 주저는 접어도 좋을 때가 되지 않았나 한다. 그는 1915년 생으로 이미 아흔을 바라보는 나이에 이르렀고 그가 발표한 소설들도 상당한 세월이 지나 가히 고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기 때문이다. 황순원은 양적으로 상당히 많은 작품을 발표한 작가다. 그 중에는 가히 한국 소설문학을 대표한다 할만한 수작도 있고 국외에까지 상당히 알려져 있는 작품도 있다. 단편 <소나기>는 1959년 영국의 문예지 Encounter에 게재되어 화제가 된 바 있고 1973년에는 단편집 「학」과 이 글에서 다루려고 하는 <日月>이 日本에서 번역, 출판되었으며

---

\* 동의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같은 해에 단편 <황노인>과 <곡예사>가 프랑스에서 佛語로 번역되어 소개되었다. 또 1975년에는 장편<카인의 후예>가 영어로 번역, 출판된 바 있다.

필자는 그의 소설 작품들 중 장편 <日月>에 대한 작품론적 고찰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이 소설은 黃順元 문학을 총괄하는 작품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sup>1)</sup> 그의 문학에서 상당히 큰 비중이 있을 뿐만 아니라 實存主義文學의 성격을 짙게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할만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韓國의 소설 작품 중에서는 張龍鶴의 <요한 詩集>, 金恩國의 <순교자>와 같은 것이 實存主義 소설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sup>2)</sup> 필자가 보기에는 前者는 아무래도 試作的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後者의 경우는 그러한 성격의 一斷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라 그 本領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런데 黃順元이 발표하고 있는 어떤 작품들은 뚜렷한 實存主義 소설적 성격을 보여 주고 있다.<sup>3)</sup> 그러한 소설 중 한 편이 <日月>로 필자가 보기로는 이 소설이 實存主義 문학사상을 가진 작품이면서 동시에 문예물로서의 우수성을 가진 것이다. 이 방면의 연구가 극히 미진한 것이 韓國 소설문학 연구에 있어서의 현실인 이상, 본격적인 實存主義 소설 <日月>과 같은 작품에 대한 작품론 적인 탐구는 우리 소설문학 연구에 한 디딤돌로서의 기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 글을 쓰는 목적은 거기에 있다.

## II. 거짓된 삶과 그 破綻

<日月>은 黃順元이 작가로서의 완숙기라 할 47세 때인 1962년 『현대문학』

1) 이보영, “황순원의 세계”, 『黃順元 研究』 『黃順元 全集』 12(文學과 至性社, 1993), p.60.

2) 그 밖에도 徐基源의 <前夜祭>, 李範宣의 <誤發彈> 같은 소설을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다.

이보영, *op. cit.*, p.294에서 재인용.

3) 이보영은 <나무를 비탈에 서다>를 1960년대 韓國의 대표적인 實存主義 소설이라고 하고 있다. *Ibid*, p.294.

1월호부터 연재를 시작하여 5월호까지에 제1부를 발표했다. 같은 문예지 이 해 10월호에서 이듬해 4월호까지에 그 제2부를 발표한 작가는 그 후 1년 여의 공백기를 지나 1964년 8월호에서 11월호까지에 제3부를 실어 이 장편소설을 완성했다. 이 소설은 이 해 倉友社에서 간행한 작가의 전집 전 6권 중 마지막 권으로 발간이 되었다. 작가는 1966년 이 소설로 이 해의 3·1문화상을 받기도 했다.

이 소설을 주인공, 건축학도 김인철은 어느 날 자신이 白丁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의 아버지는 이를 숨기기 위해 그 父兄과 혈연관계를 끊어버리고 사업에 몰두하여 돈을 벌어 집값은 기업인 행세를 하고 있었던 것인데 그 근본이 드러나고 만 것이다. 인철은 이후 자신이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로 깊은 고뇌에 빠져든다. 그러던 중 인철의 아버지는 그가 白丁의 자식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바람에 사업이 망하게 되자 자살을 하고 마는데 인철은 심한 갈등과 방황 끝에 마침내 자기를 찾게 된다는 것이 이 소설을 줄거리이다.

이 소설에 등장하고 있는 白丁이란 특수한 천민계층은 세상으로부터 인간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일반인들과 다른 머리 모양을 해야 하고 다른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다녀야 했다. 그리고 그들은 무덤에 잔디를 입혀서도 안되고 같은 계층 이외의 사람들과는 혼사도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없게 되어 있었다. 그들은 한민족 최후의 신분차별의 피해자, 죄없는 죄인으로 인간 이하의 천대를 받고 살아야 했다. 사람들은 또 그들을 이용했다. 사람들은, 그것을 되돌려 줄 때는 다시 말을 不待하지만, 존대어를 써 가며 그들에게 접근해서는 그들의 돈을 빌려간다. 소외와 설움 속에 살고 있는 이들을 이용한, 정치색을 띤 무리도 있었다. 일제 시대에 이들이 자신들에 대한 부당한 천민대우 타파와 사회적인 인권균등을 찾기 위해 衡平社 운동을 일으켰을 때 좌익분자들이 잠입하여 그것을 공산주의 운동으로 방향을 바꾸어 이 운동이 무너져 버리게 한 것이 그런 경우다.<sup>4)</sup>

4) 1923년 4월 25일 廣南 晉州에서 일어난 이 운동은 1년만에 12개 지사, 67개 분사를 가지는 대규모 조직으로 발전했으나 공산주의자들의 정치적 이용목적을 가진 개입으로 얼마 안가 와해되고 말았다.

이 소설에 비교적 그들에게 우호적인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는 池敎수 같은 인물도 따지고 보면 그들의 참다운 이웃이 아니다. 그는 일견 白丁 계급 사람들을 이해하고 마음으로부터 동정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을 그가 百濟 토기나 석탑·佛像 같은 것에 대해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은 호기심의 발로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 그는 그의 남달리 강한 骨董·好古趣味와 같은 마음으로 白丁이라는 天刑아닌 天刑에 고통받고 있는 이 계층을 자신의 좋은 구경거리고 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소설에서의 白丁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비유나 상징으로서의 의미를 더 강하게 지니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다. 사실 1960년대만 해도 그와 같은 계층 문제는 이미 그렇게까지 심각성을 띤 것이 아니어서 그로 인해 생죽음까지 빚고 있는 이 소설의 시뮬레이션 중 일부는 어쩌면 좀 과장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이 소설이 정작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백정이란 계층의 사람들을 빌려 인간이란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성찰과 인간, 이 세계의 不條理 극복의 문제이다. 이 소설을 가리켜, 인간의 근원적 존재양식을 고독으로 파악하고 그 인간조건에 반응하는 인문들의 고뇌를 조명하여 구원의 가능성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에 대해 암시를 던지는 작품이라 한 말도 그래서 나온 것일 것이다.<sup>5)</sup>

소외와 고독은 현대철학과 문학에서 자주 다루어지고 있는 인간조건이다. 이 소설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은 이 인간조건을 각각의 방법을 통해 극복하려 한다.

그것에 대한 노예근성적인, 마조히스트적인 해결을 지향하고 있는 인물이 주인공의 백부, 김본돌이다. 그는 짓밟혀 가면서 사는, 인간 이하의 노예로서의 삶을 기꺼이 받아들여려는 유형의 한 표본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자기 눈으로 白丁이 받아야 하는 수모를 보아 왔다. 그의 아버지는 어느해 단옷날 군 씨름 대회에서 결승에 나갔으나 구경꾼들 속에서 「백정은 소하구나 싸워라」하는 소리가 나오자 맥을 놓고 지고 만다. 그 씨름에서 이긴 장정은 그 일행과 함께 그의 아버지를 찾아와 씨름판에서 상으로 탄 소를 잡아 달라고 하는데 그는 그때

5) 成民燁, “존재론적 고독의 성찰”, 『黃順元 全集』8(文學과 知性社, 1993), p.345.

아버지가 아무말 없이 소를 잡아 주는 것을 본다. 본들은 어린 시절 동생 차돌(상진영감의 어릴 때 이름)이 白丁의 자식이라 하여 동네 애들한테 억울한 일을 당하자 본을 참지 못해 큰 돌을 움켜쥐었을 때 차돌에게

돌을 놔라. 때려선 안돼. 우린 우리의 길이 있는 거야. 그까짓 건 아무것도 아냐. 우린 우리대투 같잖이 있으니까.

라고 하는데 이 때의 「갈길」이란 「어떠한 모욕도 천대도 참고 살기」 바로 그것이다. 본들은 實存主義 철학자들이 말하는 이혼바 卽自存在다. 卽自存在란 자신을 변할 수 없는 존재처럼 생각하고 행동함으로써 자기의 가능성을 스스로 짓밟아 버리고 자신이 무엇이 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사르트르는 이에 대해 他者 개념이란 말을 했다. 타자(the Other)는 일종의 실체화된 공격인 의견이다. 그것은 어떤 非本來的인 태도 속에 우리를 고정시킬 수 있는 하나의 강력한 凝視(gaze), 우리로 하여금 어떤 本來的이고 독립적이고 분리된 의식으로 존재하도록 허락하지 않는 하나의 강력한 凝視를 투사한다. 이 凝視 혹은 他者意識은 卽自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다. 본들은 기꺼이 세상 사람들이 이 白丁이 그러기를 바라는 대로의 삶을 살고자 하고 있는 사람이고 이때의 세상 사람들은 바로 사르트르가 말한 他者요 凝視이다. 이와 같은 卽自存在는 자기를 기만하는 인간이다.<sup>6)</sup> 본들의 그와 같은 자기 기만의 하나가 소를 잡는 일 곧 屠牛를 신성시하는 것이다. 그는 다른 白丁들이 다 그러듯이 소를 잡는 것은 소를 하늘 나라로 보내는 것이라고 믿고 잡은 소의 꼬리와 빨, 그리고 소를 잡는 데 쓰는 칼을 신성한 물건이라고 생각한다. 본들의 그러한 물건에 대한 迷信은 차츰 칼쪽으로 경도되어 가면서 광적인 상태에까지 이른다. 특히 그의 아들 기룡이 그것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난 뒤에는 그 광기가 극단적인 것이 되어 간다. 본들의 아들 기룡은 6·25사변 때 그 형과 조카를 죽게 하고 공산군을 따라 사라져버린 이웃 사람의 아버지를 소잡는 칼로 찔러 죽여 보복을 한다. 본들은 아들의 손에서 칼을 뺏아 쥐고 아들의 등을 밀어 쫓아버린 다음 「

6) Arnold. P. Hinchliffe, 「不條理 文學(黃順元 譯)」(서울대학교 출판부, 1986), pp.30~31.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소리쳐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알게 한다. 그리고는 자기 만아들과 큰 손자를 죽게 한 청년의 아버지를 그 신성한 칼로 죽였으니 그가 극락에 간 것이 틀림없다고 믿는다. 그는 자식이 저지른 살인을 불교에서 죽은 사람의 넋을 부처와 인연을 맺어주어 좋은 곳으로 가게 하는 일, 곧 薦度와 같이 紛飾, 美化하고 있는 것이다. 그에 의해 이 신성한 물건은 말뚝하던 사람이 입에 대면 말문을 열게 되고 그것을 지니고 있으면 병도 고칠 수 있는 것으로 믿어진다.

본들은 죽은 소들을 위한 제를 지낸 날 뇌일혈로 쓰러지는데 이 때에도 그것이 자신을 다시 일어나게 해 줄 것이라 믿고 그 칼을 겨드랑이에 끼고 누워 있다. 그러나 그의 용태는 갈수록 나빠져 죽음에 앞서는 시력마저 잃어버리게 된다. 이 때에도 그는 칼을 눈 위에 올려 놓고 「보인다, 보인다」고 한다. 그는 자신이 만든 迷信에 빠져들어 어떤 幻影을 보고 있던 것이다. 본들은 자기 기만으로 不條理한 인간조건에서 헤어나려 하는 사람의 한 전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자기 기만은 그 혈육으로부터까지 혐오와 냉소를 받게 되고 결국 그는 누구로부터, 무엇으로부터도 아무런 구원도 받지 못한 채 죽어 가고 만다. 작가는 이 소설에서 본들을 통해 비굴하게 사는 인간의 삶의 허무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다. 그러므로 그를 종교적 구제의 빛이 보이는, 긍정적인 인물이라고 한 견해는<sup>7)</sup>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이라 할 것이다.

한편 본들과 정반대의 길에서 白丁에 대한 천대, 거기서 오는 소외·고독·단절이란 인간조건을 극복하려 시도한 사람이 그의 동생, 주인공 인철의 아버지 상진영감이다. 그는 白丁의 자식이란 자신의 출신성분을 철저히 감추고 숨이려 한다. 그는 그 아버지, 형과의 혈연관계를 끊어버리고 조금이라도 자신의, 천민이라는 근본이 드러날 위험이 있으면 이사를 가버린다. 부동산에 손을 대 자금을 마련한 그는 재분회사를 세워 사업에 성공을 한다. 그는 또 값비싼 서화와 골동품을 수집해 거실을 장식하는 등으로 자신을 고상한 취미를 가진 기품있는 사람으로 가장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그의 거저된 삶은 끝내 비극적

7) 이보영, “작가로서의 황순원”, 『黃順元 研究』, 『黃順元 全集』 12(文學과 知性社, 1993), p.297.

인 종말을 맞고 만다. 예기치 못한 일이 계기가 되어 그가 白丁의 자식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그를 지원해 주고 있던 은행장은 자신의 딸과 그의 아들 인철과의 관계가 더 이상 가까워질 것을 두려워해 돌연 대부를 거절하고 이미 융자를 받아간 돈의 반제를 요구해와 그의 사업은 하루 아침에 망하게 되고 만다. 가족들과도 마음의 벽을 쌓은 채 오직 한 가지 사업에 몰두, 집착으로 거기서 생의 의의를 찾고 있던 상진영감은 그에 실패하게 되자 일시에 모든 것이 붕괴되고 만다. 그러한 그에게 남은 길은 오직 한가지 뿐, 그는 아무도 없는 텅 빈 그의 집에서 독약을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만다.

여기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다 같이 자살을 하고 있는 상진영감과 오래전에 있는, 그의 누이의 죽음은 그 의미상 서로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다. 그의 누이는 자신을 끔찍이 위해주는 그 남편에게 무엇을 감추고 산다는 것이 죄스럽게 생각되어 스스로 자신이 백정의 딸이라는 것을 말해 버린다. 그녀의, 인간의 인간에 대한 이 신뢰는 상대에 의해 무참하게 배반당한다. 그녀의 남편은 그와 같은 사실을 안 순간 칼로 베듯이 그녀와의 부부의 정을 끊어 버리고 그녀는 친정으로 쫓겨오고 만다. 친정에 와 있는 그녀에게 남편이란 사람이 정식 이혼을 요구해 오자 상진영감이 가서 그 일을 매듭지으려고 하나 그녀는 기어이 그 일을 자신이 하겠다고 한다. 그리하여 시가에 간 그녀는 그날 밤 그 집 헛간에서 목을 매 죽고 만다. 보통의 경우 인간의 죽음은 모든 것의 종말, 無에의 환원, 소멸을 의미한다. 또 거기에는 공포·비에·허무의 감정이 따르게 마련이다. 그러나 그녀의 죽음은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 아버지와 같이, 자신의 임신출세에 '장애'가 된다 하여 그 아버지와는 부자관계의 절연을 선언하고 있는 주인공의 형 인호는 그녀, 그 고모의 죽음을 自滅이라고 하고 있지만 이는 잘못된 말이다. 그녀의 남편은 인간이기를 거부한 사람이다. 그녀는 인간이 아닌 인간과 이 세상에서 함께 살기를 거부한 것이다. 그녀의 자살은 實存主義에서 말하는 반항과도 상통하는, 한 진실한 인간의 결단이라고 볼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그러나 상진영감의 죽음은 그 의미가 그와는 사뭇 다르다. 그의 죽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로부터 도피하여 산, 거짓된 삶이 폭로됨으로써 필연적으로 맞게

된, 예비되어 있던 패배요 자초한 파멸이다.

이 소설에는 白丁이라는 신분으로 인한 원죄로서의 그것이 아닌, 소외와 고독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인간들이 다수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각각 그 나름의 방법으로 그와 같은 고통에서 헤어나려 하고 있지만 모두 다 실패하고 있다. 상진영감이 기생첩의 몸에서 얻어 그 첩이 죽자 집에 데리고 와 같이 살게 된 딸 인주는 상진영감의 처 홍씨에게 「죄의 씨」로 보인다. 죄 없는 罪人 인주는 거기서 오는 고독감, 소외감을 연극에 몰두함으로써 떨쳐 버리려 하고 있는데 교통사고를 당해 그 꿈마저 좌절에 부딪치게 된다.

또 아버지로부터도 어머니로부터도 진정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 온 주인공의 동생 인문은 물고기 · 쥐 · 두꺼비, 심지어는 뱀까지 기르면서 거기에 마음을 붙이려 하나 끝내 외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 중에서 가족 모두와 두꺼운 벽을 쌓고 가장 철저하게 단절되어 있는 사람이 주인공의 어머니 홍씨다. 그녀는 그 남편의, 인주의 생모와의 내연관계를 알고부터는 남편을 자신의 곁에 오지 못하게 한다. 또 인주는 간음이란 죄의 결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인문은 그 남편이 부정한 몸과 마음으로 자신에게 다가와 태어난 자식이기 때문에 둘 다 「죄의 씨」라고 생각한다. 그녀는 또 주인공 인철이, 그곳에서 자신이 하느님에게 기도할 움막을 짓는 그 「성스러운 일」을 하면서 불경스럽게도 소리내어 웃었다 하여 자신의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하겠다고 한다. 열렬한 기독교 신자인 그녀는 가족 모두를 죄의 씨 또는 죄인으로 몰아간다. 인철이 인주에게 사교 댄스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엿본 그녀는 그들 이복 남매가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르지 않을까 걱정해 험싸이고 급기야는 제 멋대로 두 사람을 近親姦을 저지른 죄인으로 단정한다. 그녀의,

이 미련한 여종은 어찌하면 좋을까 모르겠나이다. 무소불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아버지시여, 굶어살피시사 이 불쌍한 죄인을 생각하셔서라도 저 애들을 죄악에서 건져내시어 하루속히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라고 한 기도를 들으면 그것을 알 수 있다. 홍씨는 남편으로부터의 배신감, 자식들로부터의 단절감, 거기서 오는 고독, 불행감을 하느님에게 지성으로 기

도를 함으로써 극복하려 한다. 그녀의 기독교에의 경도는 광증이라 할만한 것으로 정상신앙이라 할 수도 없다. 병적 엄숙주의와 결벽성에 가족에 대한 의심·원한까지 뒤섞인 그녀의 정신세계는 사랑이 근본정신인 기독교 신앙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그것은 광적인 迷信이라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한다. 홍씨는 기도에 열중하던 중 불기둥 위에 서 있는 예수를 보고 그와 말을 주고 받고 그의 옷을 만져 보는데 이는 幻影·幻聽으로 그녀가 정상의 정신상태에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본돌영감이 칼을 눈에 대고 보인다, 보인다고 하고 있는 것과 별 다를 것 없는 광신자의 한갓 幻覺, 곡두임이 분명하다. 홍씨 역시 迷信이나 다름없는 신앙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을 뿐 고독이나 소외, 단절로부터 조금도 놓여나지 못하고 있다.

### Ⅲ. 自身에게서 찾는 救援

이 소설은 이야기가 진전되어가면서 서술의 초점은 본격적으로 인철에게 모아진다. 인철의 형 인호는 자신이 白丁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고는 낭패감을 느낀다. 광주시장으로 있는 그는 그 지역을 기반으로 국회의원이 되려던 꿈이 그와 같은 사실이 드러남으로써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상진영감이 그랬듯이 그도 그 아버지와의 부자의 연을 끊어버리고 삶의 터전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 한다.

한편 인철은 그와 같은 자신의 출신성분이 드러나는 것을 계기로 그 형 인호와는 또 다른 차원에서 큰 충격을 받게 된다. 그리고 그는, 혈연의 단절로 그와 관련된 모든 일을 일단락짓고 있는, 그 형처럼 그렇게 간단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는 인호의 경우와 같은 세속적인 것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고뇌에 위몰려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제 인철의 고뇌·갈등·방황과 그가 찾게 되는 구원의 길을 추적해 보기로 하겠다. 그는 먼저 그 일을 계기로 자기 주변 사람들의 삶이 허위와 가식에 차 있으며 그 이웃이 의외로 비정한 사람들이라 함을 발견하고 환멸을 느낀다.

그는 그 아버지가 값비싼 골동품·서화를 사모으고 그것으로 거실을 장식하는 것을 마음의 여유, 고상한 취미로 보고 아버지의 그러한 면에 온근히 존경의 염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것이 그 아버지가 자신의 前身을 가리기 위한 포즈요 제스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은 그로 하여금 말할 수 없이 어두운 심정에 빠져들게 한다. 더구나 그 아버지가 다혜와 결혼을 하여 池교수의 데릴사위가 되어 천민출신이란 신분에서 상승적 탈출을 하라고 하지 인철은 그 아버지에 대해 심한 역겨움과 함께 분노를 느낀다. 인철은 그 아버지와 형의 삶이 비겁한 도피자,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기한의 그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다운 삶이 아닐 뿐 아니라 결국에는 파탄에 이르고 말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는 근본적으로 그러한 삶은 바로 자기로부터의 도피요 자기 속이기이기 때문에 성공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인철은 또 그의 백부 본들의 삶도 비천한 노예의 그것이며 궁극적으로 자기 기만이라는 것을 안다. 그와 같은 사실을 인철에게 정확하게 말해주는 것은 본들의 親子 기풍이다. 그는 그 아버지가 소잡는 칼을 신성시하고 신통력을 가진 것으로 만들어 모시게 된 것은 결국 그로 하여금 사람을 죽였다는 죄의식을 덜어주려고 한 것이었다고 말한다. 그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그런 거짓된 행위를 하면 할수록 죄의식이 덜어지기는커녕 거꾸로 더욱 피를 찾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칼을 입에 대자 말을 못하던 애가 말을 하게 되었다느니 그 칼이 병을 낫게 했다고 하는 것도 모두 사실과 거리가 먼 조작된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또 그 아버지가 임종 직전 그 칼을 눈 위에 올려 놓고 「보인다」고 한 것도 미친 것이었다고 한다. 여기서 작가는 최후까지 자신을 기만하고 있는 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한 자기 아버지를 타기하는 기풍을 통해 어떠한 속임수도 끝까지 진실을 덮어 버릴 수도 속일 수도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sup>8)</sup> 이 소설에 본돌영감이 그것이 녹슬면 불길하다 하여 설새없이 닦았는데도 문제의 칼에 새겨진 홈 자국에는 여전히 까만 기름때가 끼어 있었

8) 그러므로 「보인다」고 하고 있는 본돌을 가리켜 그것이 제2시각이며 인간능력의 한 극점, 한 신비능력이라고 한 말은 수궁하기 어렵다. 이보영 *op. cit.*, p.64.

다고 한 장면은 그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준다.

또 인철은 그때까지 그에게 비교적 인격적으로 숭복하고 있던 池교수에게서도 실망과 배신감을 느끼게 된다. 자신의 白丁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고나자 그의 눈에, 白丁에 대한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池교수는 그 전과 다르게 비치게 된 것이다. 그의 그와 같은 심경의 변화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잘 보여주고 있다.

대청마루와 전년방을 뒤어 만든 서재 안쪽 벽 서가에는 책들이 꽂 들어차 있고, 마루방 구석진 곳에는 자기, 토기, 와당 같은 것이 놓여 있고, 그 한옆에 탁본 뜬 화선지 문치가 뚝뚝 말려 세워져 있고…… 모든게 예전대로 제 놓을 자리에 놓여 깨끗하게 치워져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들을 대하고 있는 자기만은 예전의 자기가 아닌 것 같았다.

인철은 池교수의 서재에서 池교수가 白丁과 관련된 사항들을 메모한 것을 보았을 때도 전과 다른 감정이 된다. 인철은 新羅의 벼슬 이름에 角于·角榮 등 소뿔을 의미하는 글자가 쓰였다는 것은 우리 민족이 소를 숭배했다는 것을 뜻한다느니 中國 고대 전설상의 제왕 신농씨가 머리는 소, 몸은 사람의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당시의 그 나라 사람들이 소를 신성시했다는 증거라느니 하는, 池교수의 메모들은 학문적 연구라기보다 好事家の 호기심 채우기 이상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생각한다. 인철은 이제 와서 보니 池교수의 白丁연구란 것은 진지한 학문이라고 볼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그가 볼 때 池교수의 눈에 비친 白丁은 존귀한 인간이라기 보다 그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三國時代의 토기나 기울어진 석탑과 같은 한갓 신기한 구경거리에 불과했다. 인철은 이제 그와 같은 알뜰고 비정한 구경꾼 池교수가 「몰인정한」 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을 어쩔 수 없게 된다. 인철은 池교수가 탐내던, 본둘이 대물림하여 소 잡는데 쓰던 칼을 손에 넣게 되나 그것을 池교수에게 주지 않는다. 그 대신 그는 그 칼을 대장간에 주어 꺾쇠를 만들게 하고 있다. 영감이 있다느니 신성한 물건이니 하는 허위에 찬 말을 믿지 않는 그의 눈에는 그것이 조금도 신기한 것이 없는, 베는, 끊는, 죽이는 살벌한 도구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가 그것으로 꺾쇠를 만들고 있다는 것은 그 이면에 또 다른 의미를 가진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

다. 이는 그가 베고 자르는 물건, 칼을 두 개의 물건을 이어주는, 맺어주는 물건이 되게 하려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것은 인간은 서로 단절되거나 상처를 내는 관계가 아닌, 애정을 가진 관계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암유하고 있는 것이다. 작가는 인철의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 인간이 타인의 고통을 구경거리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 아닌가 한다. 여기서 인철은 심한 고독감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인간이란 도대체 어떠한 존재인가, 나는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그것이 거짓 없는 삶이 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에 봉착하게 된다. 이것은 그에게 큰 고뇌를 안겨주는데 그 하중을 감당하지 못한 그는 술집을 찾아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술잔을 주고 받음으로써 고독감을 이겨내고 정신적인 평안을 얻으려 한다. 인철은 거의 매일, 「산 인간극」이 연출되고 있는 곳이라고 불리는 대포집을 찾아 그 곳에서 술을 마시며 사람들과 잡다한 대화를 나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고뇌를 떨쳐버릴 수도 없었고 더구나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도 없었다. 그는 어느 날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한 청년으로부터 까닭없이 주먹질을 당한다. 술집에는 그와 술을 마시고 있던, 대작 상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위해가 올 것을 두려워해 누구 하나 마주 싸워주기는커녕 이이유없는 폭행을 제지하지도 않는다.

아무도 없는 허허벌판에 혼자 남은 것같은, 앞의 청년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들이 있었다. 얼굴들이 모두 이리 향해 있었다. 그러나 하나같이 다칠세라 도사리고 앉았는 얼굴들이었다. 좁전에 동석했던 사람들마저도 무인지경 같은 속에서 인철은 몸을 일으켜 허청거리며 자기 자리고 가 앉았다. 잔에 술을 부어 입안에 고인 액체와 함께 들이삼켰다. 허허벌판, 아니 정글야. 돌리봐야 사람이라곤 하나두 없는…… 아니지. 사람들이 있었어. 인간으로 이뤄진 정글……인철은 혼자속으로 이렇게 말하고는 또 술을 따라 마셨다. 그때야 줄 안이 다시 응성거리기 시작했다.

여기서 인철은 현대인들이 상투적으로 쓰고 있는 말, 「군중 속의 고독」을 경험하게 된다. 이날의 그와 같은 경험은 그에게 막연히 시간을 죽이기 위한 사람들과의 만남도, 술도 아무런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해 준다. 거기다 기룡이 그에게 해 준,

“그런데 어제 저번에 만났을 때보담두 안색이 더 나쁜데…… 무리해서 술을 마실 필요 없지 않을까. 술에다 외로움을 푼다는 건 가장 졸렬한 방법야. 물론 술이 그걸 받아주지도 않지만.”

라 한 말은 그것을 더욱 분명하게 해 준다.

인철은, 자신은 그 어머니와 같이 어떤 종교에 몰입함으로써 고뇌와 방황에서 헤어날 수도 없다는 것을 안다. 그것은 그의 꿈이 잘 말해 준다. 이 소설에는 모두 아홉 차례에 걸쳐 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千二斗가 말했 듯, 이들 꿈은 작중인물의 심리세계를 암시하는 상징이며 작품의 테마를 뒷받침하는 효과적인 묘사이다.<sup>9)</sup> 그 꿈들 중 별판에 세워진 T자가 등장하는 것은 인철의 종교에 대한 무의식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인철은 꿈 속에서 뜨거운 태양 아래 목이 마른 채 거친 황토밭을 지쳐서 걷고 있다가 저 앞에 세워진 T자를 발견하고 반가워하며 그것에 다가간다. 그러나 그는 이내 그것이 그에게 아무런 안식도, 갈증의 해소도 주지 못할 뿐 아니라 도리어 또 다른 重荷가 될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거기에 무엇이 탁 어깨를 내리치며 짓눌렀다. 보니 거대한 T자였다. 그는 T자를 짊어진 채 그 무게에 허리를 굽히고 가파스로 일어섰다. 줄을 지어서 있던 사람들은 어디로 가버렸는지 없어지고 자기 혼자뿐이었다. 인철은 다시 황량한 황토밭을 무거운 T자까지 짊어지고 비치적비치적 걸어가는 것이었다.

꿈 속의 T자는 십자가의 상징이 분명하다.<sup>10)</sup> 꿈 속의 T자가 목마르고 지친 그에게 더한 짐이 되고 있다는 것은 십자가가 상징하는 기독교는 물론이고 어떠한 종교도 인간에게 부담만 될 뿐 구원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디에서도, 어떤 출구도 길도 찾을 수 없는 인철은 나는 누구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는 근본적인 물음으로 되돌아온다. 그는 모든 문제의 해답은 거기서 찾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달은 것이다. 그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 인철이 꾸고 있는 몇 차례에 걸친 꿈이다.

9) 千二斗, “黃順元의 文學”, 『新韓國文學全集』 50(語文閣, 1984), p.209.

10) 張賢淑, 「황순원 문학 연구」(시와 시학사, 1994), p.298.

인철은 쉬지 않고 계단을 내려갔다. 저 아래의 무슨 문제가 썩어진 종이 쪽지를 가지로 내려가는 길로 생각되기도 하고, 누구를 만나러 내려가는 길도 계단을 아래로 아래로 잇따라 끝이 없는 것이다. …中略… 한 번은 이 어둡침침한 층계를 내려가며 누구인가를 꼭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의 앞에는 한결같이 끝없는 층계가 뻗어있을 뿐인 것이다. 그러다가 그는 층계를 디디는 자기 발자국 소리가 갑자기 크게 울리는 것을 깨달았다. 그 소리가 한없이 뻗은 층계 위아래에서 메아리쳐 돌아왔다.

위의 꿈에서 주인공이 계단을 밟고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주인공이 자아의 심연을 찾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가 찾으려 하는 「종이쪽지에 썩어진 문제」도 만나러 하는 「누구」도 모두 「참 자아」이다.

아래의 꿈도 그 성질상 위와 비슷한 데가 있다.

또 꿈 속에서 그는 어두운 동굴 속 같은 데를 걸어들어가기도 했다. 들어갈수록 캄캄한 암흑이 앞을 가로막아 끝난 데를 알 수가 없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오히려 이 어둠을 다행으로 여겼고, 이 어둠을 찾으려 했던 것처럼 느끼는 것이었다. 이 어둠 속에 그대로 녹아버렸으면! 그는 자꾸만 동굴 깊숙이 걸어들어갔다. 한결 마음이 편안했다. 인제 됐구나. 그때 별안간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인철아, 인철아! 그는 못 들은 체 그냥 안으로 발길을 옮겼다. 인철아, 내 목소리가 안 들리느냐. 그제야 인철은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다 보았다.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누구나. 나다, 바루 네가 지금껏 찾아다니던 사람이다. 난 아무도 찾지 않았다. 거짓말 마라, 난 다 알고 있다. 이제 와서 겁을 내는구나, 어쨌피 넌 날 만날 하니 어서 이리 나오너라. 좋다, 만나주겠다. 인철은 동굴 속을 걸어나오기 시작했다. 흰한 동굴 아가리가 저만치 보였다. 마침내 인철은 동굴을 벗어나 눈부신 햇살 속에 섰다. 그는 소리쳤다. 자 나왔다, 넌 어디 있느냐. 소리의 임자가 대답했다. 바루 네 옆에 있다. 인철은 주위를 살펴보았으나 아무도 없었다. 어디냐, 어디. 바루 네 곁에 있다. 아직도 네 눈은 두려움에 떨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다, 그런 눈을 하지 말고 똑똑히 보아라. 인철은 눈을 크게 뜨려고 하다가 잠이 잤다.

이 꿈에서 인철을 부르는 소리의 주인은 인철 자신이다. 이에 대해 한 논문은 여기서의 「어두운 동굴」과 암흑은 자궁의 이미지를 표상하는 것으로 꿈속의 인철이 거기에 안주하고파 하는 것은 그의 모체 속으로의 퇴행을 의미하고 밝은 곳으로 그가 나오려 하는 것은 인간 조건을 극복하지 못하는 자기에

대해 그것을 극복하라고 하는 또 하나의 자기라고 하고 있는데<sup>11)</sup> 이는 수용할 만한 견해라고 생각한다. 위와 같은 꿈은 이 소설의 實存主義文學의 성격과 관련지어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 實存主義 사상의 핵심에 닿으려면 「實存은 본質에 先行한다」는 命題에 접근하는 것이 지름길이 될 것 같다. 實存이란 現實存在의 준말이다. 이는 현실적이며 구체적이고 진실하고 하나 뿐인 개별적인 존재인 「제 각각의 나 자신」을 의미한다. 그런데 現實存在가 사물인 경우, 만물은 본래의 實存 곧 만물의 원형으로서의 이데아에서 파생된다. 그러므로 이때의 만물은 이데아를 원형으로 하여 만든 模作, 실물의 그림자, 그림, 映像이다. 곧 이때의 存在는 밖으로 나타나 있는 구체적, 현실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사물의 경우, 존재에 앞서서 본질이 있다.

그러나 사물이 아닌 인간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인간은 인간이므로 물건 들처럼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다. 사람은 단순한 존재나 생존에 그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느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자기의 존재 의미를 의식하면서 그 존재의 방식을 스스로 선택해 갈 수 있는 現實存在다. 곧 사람은 現實存在로 개별성과 주체성을 가진 것이다. 인간의 본질이란 그 개별성과 주체성을 제거하고 일반화할 때 성립한다. 일반화되지 않은 인간의 現實存在는 본질의 밖으로 나와서 각자가 독자적인 방식으로 자기를 형성해 나간다. 이러한 인간에 대해서는 「그것이 무엇인가?」가 아니고 「그것은 누구냐?」고 물어야 한다. 이 물음에 대한 답으로서의 개별적인 인간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만드는 자요, 더구나 여러 대상을 만드는 자인 동시에 자기 자신도 만들어가는 존재이다. 만일 神이 존재한다면, 神이 인간을 창조했다면 인간의 본질은 神의 마음 속에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르트르 등 無神論의 實存主義者에게는 神은 없다. 그러므로 인간 존재는 개념에 의해 규정되기에 앞서 먼저 實存하고 다음에 스스로 생각하고 행위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만들어 간다. 이러한 사람에 있어서 본질은 본래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스스로 정해가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상은 사르트르가 「사람은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이것이 實存主義의 제1원리이다。」라고 한

11) 張賢淑, *op. cit.*, pp.300~317.

말에<sup>12)</sup> 응축되어 있다.

그 전까지의 無明 속에 산 존재이던 인철은 그의 출신 성분을 둘러싸고 주변에 파란이 일자 새로이 눈을 뜨기 시작했고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위에 인용한 꿈들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인철은 白丁의 자손, 대륙상사 사장의 아들로써 미리 정해진 삶을 살아서는 안된다는 깨달음을 갖기 시작한다. 새로이 눈뜨기 시작한 인철은 實存主義에서 말하는 不條理를 느낀다. 카뮈에 의하면 不條理는 인간의 현상을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존재, 목적이 없는 존재로 보는 것, 문자 그대로 不調和의 뜻이다<sup>13)</sup> 그에 의하면 不條理感은 ① 자신이 자신의 존재 가치와 목적에 대해 의심을 일으켰을 때 ② 시간의 흐름에 대한 예리한 감점 혹은 시간이 파괴력이라는 것을 인식했을 때 ③ 자신이 낯선 세계에 남겨져 있다는 감정을 가지게 되었을 때 ④ 타인으로부터의 단절감을 느꼈을 때 중어느 하나 또는 그들 몇몇이 중첩되어 갑작스럽게 일어난다고 했다.<sup>14)</sup> 인철의 경우는 그 중 ② 시간에 대한 인식을 제외한 세 가지가 중첩되어 不條理感을 느끼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이와 같은 不條理 앞에서 인간은 存在論的 嘔吐를 느끼게 된다. 존 러셀 타일러는 이때의 嘔吐를 인간이 異姓과 實存의 알력으로부터 비어져나가는 경험이라고 했다.<sup>15)</sup> 우리는 이 소설에서 인철의, 그의 사촌형 기룡을 찾으러 갔다가 한 도살장에서 소잡는 광경을 보고 나서의 모습에서 그가 위의 存在論的 嘔吐와 흡사한 것을 경험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자기는 무엇하러 그 소 잡는 광경을 살살이 눈여겨보고 있었을까. 현기증을 참아가면서. 그는 담배를 붙여 물었다. 입안이 쓰고 머리가 핑 돌았다. 발밑에 떨어구어 문질러 버렸다.

위의 인용문에서의 「현기증」 「머리가 핑 돌았다」고 한 말들이 바로 그러한 嘔吐와 같은 현상이라고 보아도 될 것이다.

12) 사르트르, 「實存主義는 휴머니즘이다(方坤 譯)」(文勢出版社, 1977), p.20.

13) Arnold P. Hinchliffe, *op. cit.*, p.1.

14) *Ibid*, pp.43~44.

15) *Ibid*, p.1.에서 재인용.

한편 現存在은 불안을 느낀다. 이 불안은 實存主義 윤리학에 있어서의 또 하나의 개념이다. 이것은 現存在가 그 現存在의 가능성에 따라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現存在에게 경고하는 일종의 바로미터 역할을 한다. 곧 불안은 實存主義的 원죄의 표현이다. 그것은 現存在를 現存在의 본래적인 존재 기능성의 실현으로 소환하는 양심의 소리이다. 이 불안은 現存在를 본래적인 데로 데리고 간다. 그리하여 그의 삶에 있어서의 일상적인 친숙성은 무너지게 되고 만다.

인철은 그 앞을 지나치면서 생각했다. 내일 아침 미아리 도수장에를 찾아갈 것인가. 대체 자기는 사촌을 만나 어찌자는 것일까. 차라리 아버지가 노력해온 것처럼 그 세계와는 외면하고 사는 것이 현명한 일이 아닌가. 인철은 지난 며칠 동안 마음 속에서 싸워온 이 두 가지 생각에 또다시 말려들기 시작했다.

이제까지의 생활에 그냥 순응해서 살면 무난하고 마음 편한 것을 무엇하러 이러고 다니는지 자신도 모르겠다. 그렇다고 형 인호처럼 피해버려야 하는가 어찌는가.

위의 두 인용문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은 인철의 심적 갈등은 그의 現存在의 불안을 보여주는 것이다. 인철의 아버지, 그 형과 같은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존재 곧 卽自存在가 되려하는 것이다. 對自存在에게는 본질이 없다. 본질의 핵 대신에 그들은 無를 가진다. 그러한 존재는 자신의 가능성, 자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것, 또는 아직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알고 있다. 따라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된다고 주장할 수도, 되려고 노력할 수도 있는 것이다.

對自存在가 되기로 한 인철은 낡은 자기의 허물을 벗고 새로운 자기를 형성해가려 한다. 그런 점에서 그가 건축설계학도라 한 것은 상당히 함축성 있는 인물설정이라 할 것이다. 가는 너무나 같은 분위기 - 그 집에, 그 술에, 그 사람에, 그 애기에 불현듯 진력이 나는 것을 느껴 대포집과 결별을 한다. 그리고 池교수와 나미에게 스스로 자신이 白丁의 자식이라는 것을 밝힌다. 그의 이와 같은 행동은 그들과 이성 사이의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다혜·나미와 단절을 각오한 것으로 일찍이 그 고모가 그녀의 남편에게 자신의 출신성분을 밝힌 것과 같은 성질의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인철은 진정한 자기 탐색의 하나로, 그가 현실 도피자도 자기 기만자도 아닌 진실한 인간이라고 생각한 기룡을 여러 차례에 걸쳐 끌리더라도 한 것처럼 찾아간다. 그는 기룡이, 자신이 해답을 찾지 못해 번민하고 있는, 인간이란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의문에 대한 어떤 해답을 줄 사람으로 기대한다.

그러한 인철에게 기룡은 아래와 같이, 인간 존재의 본질은 고독이며 이 세상의 비극들은 그 고독으로 인해서 빚어진다고 말한다.

“사람은 외롭게 마련야. 그래서 역사가 이뤄지구 사람을 죽이구 또 죽구 하는 게 아닐까. 본시 인간이, 그리구 땅과 하늘이 피를 요구하구 있다구 봐. 어떤 외롭에서 벗어나려구 말야. ...下略...”

그리고 기룡이 술집에서 들려주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도 그의 그와 같은 생각을 담을 것이다. 장정 세넷이 바닷가 오막살이에서 사람 대여섯을 데리고 나와 구덩이를 파고 묻어 죽이고 돌아선다. 그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던 한 병사가 이번에는 총으로 그 장정들을 모두 쏘아 죽여 버린다는 것이 그 이야기의 줄거리였다. 그때 어떤 사람이 왜 그 병사는 어느 한쪽만 죽게 하거나 죽이지 않고 양쪽 모두가 다 죽게하고 있느냐고 묻자 기룡은 “그 병사는 외로웠을 뿐요.” 라고 짧게 끊어 답하고 있다. 태양이 뜨거워서 살인을 했다는, 카뮈의 <異邦人>의 주인공 피르소를 연상하게 하는 이 이야기에서의 병사는 기룡 자신의 분신이다.<sup>16)</sup> 김치수도 이에 대해, 이 이야기는 인간의 본질이 외로움이라는 외로움 긍정의 그것이라고 말하고 있다.<sup>17)</sup> 기룡은 또 인간의 본성을, 온기를 좋아해 따뜻한 곳이면 어느 곳이나 찾으면서 자신을 먹이고 재우는 등 돌보아주던 주인에게는 한 톨어치의 정도 되돌려주는 법이 없는 고양이에 비유하기도 한다. 기룡은 인간은 그 존재 조건 자체가 외로움이요 인간이 하는 행위는 거기에서 출발한 無常한 것이므로 생이란 그렇게 사는 것이라는 인생관, 세계관을 보여준다.

16) 張賢淑, *op. cit.*, p.305.

17) 김치수, “외로움과 그 극복의 문제”, 『黃順元 研究』, 『黃順元 全集』 12(文學과 知性社, 1993), p.115.

인철은 기룡을 만는 회수가 늘어가면서 그에게서 그러한 사상에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럴수록 그는 차디찬 인간이 되어간다. 그는 그에게 사랑을 보내오는 나미에 대해서 냉정하게 「너는 너, 나는 나」라는 거리를 둔다. 그리고 사람을 믿지도 않게 된다. 소외가 지배적이 되면 인간의 신뢰는 불신으로 바뀐다고 한 사람이 있는데<sup>18)</sup> 이때의 인철이 바로 그런 경우가 된 것이다. 그가 그 여동생 인주를 추잡한 이성 관계를 갖고 있다고 몰아붙여 그녀로 하여금 교통사고를 당해 한쪽 다리를 잃게 하는 비극도 그렇게 하여 일어난다. 작가는 여기서 기룡이 가지고 있는, 거기에 인철이 영향을 받은 인생관, 세계관은 필연적으로 인간을 虛無主義에 굴러떨어지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虛無主義가 가는 길은 절망의 나락밖에 없다.

그와 같은 위기에 처해 있는 인철에게 한 줄기의 밝은 빛이 비쳐온다. 나미의 새로운 접근이 그것이다. 인간사, 세상사 모든 것이 연극이라고, 냉소적이던 나미는 인철이 그의 출신 성분을 그녀에게 털어놓은 이후

나는 그를 차지해야 돼. 그가 어떤 부류의 사람이건, 어느 누가 그를 둘러싸고 있건. 아버지의 반대로 뒤고, 다혜의 두꺼운 그늘이고 뒤고 다 문제삼을 것 없어.

라고 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온다. 이, 나미의 아무 조건 없는, 되돌려 받을 것을 전제하지 않은 사랑에 인철은 생각의 일대 지각변동을 일으킨다. 그는 기룡의 虛無主義는 극복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인철은 이제 한나가 말한,<sup>19)</sup> 不條理는 결말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그는 인간은 不條理한 존재, 소외되고 고독한 존재이나 그것을 딛고 넘어서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대단원은 이 소설의 주제를 담고 있는 매우 시사적인 것이라 할 것이다.

이대로 나는 관객의 입장에서 다혜와 나미를 대해야 하는가. 나는 나, 너는 너라는 인간 관계란 있을 수 없지 않은가. 인간이 소외당한 자기 자

18) 프리츠 하이네만(黃文秀 譯), 「實存哲學」(文藝出版社, 1990), p.255.

19) Arnold P. Hinchiffe, *op. cit.*, pp.53~54.

신을 도로 찾으려면 우선 각자에 주어진 외로움을 참구 견뎌나가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할 거야. 기룡의 말이었다. …… 그건 그렇다. 하지만 그 외로움이란 인간과 인간이 격리돼 있는 상태에서만 오는 게 아니지 않는가. 서로 부딪칠 수 있는 데까지 부딪쳐본 다음에 처리돼야만 할 문제가 아닌가. 기룡을 만나야 한다. 만나 얘기해야 한다.

그리고는 그는 머리에 쓰고 있던 고깔모자를 벗어서 나뭇가지에게 걸어두고 나미네 집 파티장을 빠져 나오고 있다. 이는 그가 가면(고깔)의 생활을 끝내고 새 생활을 시작하려 하는 것으로 본 끝이 있는데<sup>20)</sup> 이는 남독할만한 견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소설을 통해 작가는 인간, 삶에 대한 사랑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소설이 특히 돋보이는 점은 實存主義의 성격을 띠고 있으면서도 그 사상이 육화되어 있어 작품이 미적 승화에 이르고 있다는 점이다.

#### IV. 結 論

黃順元의 장편 <日月>은 韓國의 본격적인 정통 實存主義 소설이라 할 수 있다. 작가는 먼저 實存主義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거짓된 삶, 비겁한 삶, 無明, 迷妄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 주인공의 백부 본돌영감은 부당하게 천대받는 白丁으로, 노예로서의 삶에 자족하는 인물로 그는 결국 혐오와 냉소 속에 죽고 만다.

주인공 김인철의 아버지 상진영감은 白丁의 자식이라는 사실을 감추고 기품 있는 기업인 행세를 하나 어느 날 그의 출신성분이 드러나는 바람에 사업이 망하게 되고 절망감을 이기지 못한 그는 스스로 죽음을 택한다. 그의 세상 속이 기 곧 자기 기반은 끝내 실패하고 만 것이다.

또 주인공의 어머니 홍씨는 가족들과 마음의 벽을 쌓고 기독교를 믿어 거기서 구원을 얻으려 하나 객관적으로 볼 때 그녀는 狂信에 빠져 끝없이 허우적거리고 있을 뿐이다.

20) 千二斗, *op. cit.*, p.215.

이 소설은 그에 이어 주인공이 實存主義에서 볼 때 인간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참다운 삶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한 면에서 實存主義 문학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이 白丁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됨과 동시에 위와 같은, 그의 주변 사람들의 허위와 가식의 삶을 보게 된 주인공은 인간이란 어떠한 존재인가, 나는 부딪치게 된다. 인철은 몇 차례에 걸친 꿈의 암시를 받아 이제 자신은 白丁의 자손, 대륙상사 사장의 아들로서의 미리 정해진 삶을 살기를 거부한다. 이것은 그가 누군가에 의해, 무엇인가에 의해 미리 만들어진 존재가 아닌, 자신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인간이 되려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그가 實存主義 사상의 기본 命題, 實存은 本質에 先行한다는 것을 알고 그에 입각한 삶을 살려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때 인철은 머리가 펴 도는, 현기증을 느끼게 되는데 이는 實存主義에 있어서의, 인간이 不條理를 느꼈을 때 경험하게 되는 存在論의嘔吐와 같은 것이다. 實存主義者들은 인간이 자신의 존재 가치와 목적에 대해 의심을 가졌을 때, 낯선 세계에 남겨져 있다는 감정을 갖게 되었을 때, 타인으로부터의 단절감을 느꼈을 때 不條理感을 느낀다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인철이 바로 그런 경우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인철은 그도 그 아버지나 형과 같이 생활에 순응해 살려는 자기와 그럴 수 없다는 자기와의 내적 갈등을 의식하게 되는데 이것은 일종의 實存主義的 原罪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實存主義에 의하면 인간은 그가 現存在의 가능성에 따라 살지 않을 때 現存在를 본래적인 데로 데리고 가려는 양심의 소리에 의해 일어나는 일종의, 불안에 의한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때의 인철의 경우가 그런 것이다.

있는 그대로의 인간 곧 卽自存在이기를 거부하고 의식이 있는, 자신이 원하는 그 무엇이 되려는 對自存在로 살기로 결심한 인철은, 세상을 잊어버리려고 중독자처럼 매일 마시고 있던 술을 끊어버리고 사귀던 여자 친구들에게 자신이 白丁의 자손이라는 것을 스스로 밝힌다.

인철은 그의 사촌형 기룡을 만나는데 그는 인간은 그 존재의 조건 자체가

외로움이며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서로 죽이고 죽는 비극이 빚어지게 되어 있다고 하고 인철은 거기에 크게 공감한다. 이 또한 不條理라 할 수 있는데 인철은 여기서 虛無主義의 나락으로 굴러 떨어질 위기에 처한다. 그러나 나미가 그에게 바쳐오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사랑에 인철은 그와 같은 虛無主義를 극복한다. 그는 인간은 서로 생명 있는 관계를 가짐으로써 고독·소외·단절을 뛰어넘을 수 있으며 거기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이상과 같은 점에서<日月>은 한 편의 본격 實存主義 소설이라 할 수 있으며 그 사상이 肉化되어 미적 승화에 이르고 있어 우리 나라의 그러한 소설 중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해도 될 것이다.

Abstract

## The Existentialist Aspect of Hwang, Soon-Won's Novel 'Ilwol'

Chang Yang-Soo

Hwang, Soon-Won's, '*The Ilwol*' can be called a full-scale legitimate existentialism novel of Korea. The protagonist of this novel is that he was not the existence who made by someone and something in advance but he tried to make himself human being alone. It means that he realized basic proposition of existentialism idea, that is, 「the existence is superior to nature」 and then tries to live his life which is based on it.

At this time, that the character feels dizzy is the same existent vomit to be experienced when human being feel absurdity. Also, the protagonist suffers troubles between his self who adapts to his living and not. This is related to existential original sin finally.

The human being who are. that is, the character who refuses to be 'an sich' and tries to become 'für sich' what he wants fell into a risk in nihilism but overcome it. In this novel, the author says that human being are taken relief as having live relation each other.